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8. 3. Vol 251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고것, 참!

호 · 호 · 호 ·

달큰한 봄바람
귀엣소리 속삭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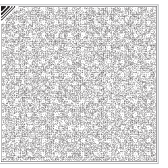
젖부리만한 꽃맹아리들
배냇짓인양 움쭉움쭉

제 한껏
기지개 켤 때
젖니 솟듯
빼
죽
이



노 영 임 (盧英任)

- 2007.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
 - 2012. 제1회 현대 충청 신진예술인 선정
 - 2013. 한국시조시인협회 신인상 수상
 - 2016. 충북여성문학상 수상
- 시조집 『여자의 서랍』, 『한 번쯤, 한 번쯤은』 출간
21세기시조 동인, 충북시조, 진천문학 회원으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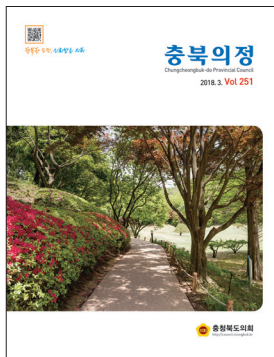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8. 3. Vol 251

Contents



청남대의 봄

청남대는 대통령께서 휴식과 함께 국정을 구상하시던 곳으로,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국내 유일의 대통령 별장입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새싹과 꽃들이 만개하는 봄이 찾아오면 대청호반을 따라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실 수 있는 충북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사진제공 / 중부출판사

- 04 | 제361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충청북도 2018년도 운영방향
- 07 | 충청북도교육청 2018년도 운영방향
- 08 | 학교시설 이용료 인하 관련 조례 개정
제천 화재참사 성금·적십자특별회비 전달
- 09 | 링컨학교 학생·요녕성상무청 도의회 방문
- 10 | 재래시장 장보기·사회복지시설 위문
- 12 |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 18 | 제361회 임시회 주요 처리의안
- 20 | 대집행부 질문
- 23 | 5분 자유발언
- 26 | 일반상식
- 28 |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 의정논단

- 발 행 일 : 2018년 3월
- 발 행 인 :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양희
- 발 행 처 : 충청북도의회
- 구독신청 :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 (043) 220-5123 · F A X : (043) 220-5119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buk.kr>



충청북도의회는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361회 임시회를 개최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등 현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제361회 임시회

2018년도 첫 주요업무계획 청취 '힘찬 출발'

대집행부 질문·5분발언 등 통해 민생현안 진단

충북도의회(의장 김양희)는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2018년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기관 등의 2018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도정과 교육행정 정책 방향과 현안들을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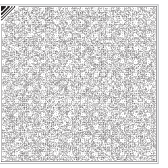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는 1월 17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 「제361

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고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또, 장선배 의원, 윤홍창 의원, 김학철 의원이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여 △충북학생수련원 등 수련시설 비공개 객실 운영과 중앙여고 부실급식 관련 부실급식 방지 대책 △제천 화재 참사 및 충청북도 MRO사업 감사원 감사 △제천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발생과 관련한 충북도 소방정책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이어, 엄재창 의원, 임희무 의원, 박우양 의원, 임순



제361회 임시회 주요 처리의안

(의안 10건 :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계획안

목 의원, 이숙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버려진 3만명’, ‘올바른 충북도정과 교육 행정을 위한 제언’,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대응 필요’, ‘제천 화재참사,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충북 과학교 육사난립 해결책,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때’ 등을 주제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며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계획안」 등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1월 31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

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민안전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임회무 의원, 정영수 의원, 박봉순 의원, 임병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괴산지역 유기농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충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절실’, ‘화재 참사 예방을 위하여 법·제도 등을 개선하자’, ‘오송 바이오밸리의 현주소’ 등을 주제로 유기농육성, 저출산대책, 재난예방 등에 대한 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양희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매순간 찾아내고 실천하며 하루를 한 달처럼, 한 달을 일 년처럼 열심히 뛰겠다”며 새해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잇따른 화재 참사는 재난·재해에 대한 관리와 우리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각심을 일깨워 준 사례”라며 “안전문화 정착과 도민의식 개선 등 안전이 실천에 이르기까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61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충청북도 2018년도 운영방향

풍요·공존·개방의 핵심가치로 '행복한 젊은 충북' 건설

4% 충북경제 실현·미래비전 및 세계화 전략에 역점

충청북도는 2018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망원진세(望遠進世)'로 정하고 2020년 '4% 충북경제' 실현을 향한 기반을 굳혀 나가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며(望遠) 세계속으로 전진하는(進世)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2020년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실현과 '초(超) 100세 시대'가 보편화되는 2040년까지 내다보는 '충북미래비전 2040 및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풍요·공존·개방'의 미래핵심 가치를 토대로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의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역동적인 충북, 어르신들에게는 더 젊고 더 건강한 젊은 충북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와 같이 2018년은 「2020년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실현 기반을 확고히 굳히고, 「2040년 미래비전 및 세계화」의 초석을 놓은 「망원진세(望遠進世)충북」의 원년으로 다음과 같이 부문별 시책을 추진한다.

공,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미래첨단 농업도 건설

농업의 미래화·첨단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가축질병 예방, 농식품 판매 활성화 및 농업인 맞춤형 복지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체육 어우러진 품격 있는 충북조성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문화예술 구현, 고부가가치 충북 힐링관광 조성, 대표적인 관광시설 육성, 전국 장애인학생 및 소년체전, 세계무예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대비 「4%충북경제」 실현 박차

전국대비 충북경제 비중 3.77%, 경제성장률 6.27%달성과 고용률 72%, 실업률 1.5%, 수출 220억 달러 달성, 4차 산업혁명 기술관련 기업유치에 나서며 6대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충북건설·열린도정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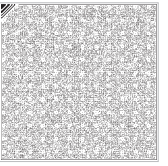
도민 안전기반 및 피해복구·재난예방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소방력 운영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충북미래비전 2040 및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 미래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SOC 본격추진으로 균형발전 선도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세종시 연결도로 건설, 강호축 개발을 국가정책의 아젠다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중부내륙철도·중앙선 복선 조기완

도민복지 구현·안전하고 쾌적한 충북건설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를 강화하고 여성이 당당한 충북 조성,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통해 본 2018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충청북도교육청 2018년도 운영방향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등 혁신 지속 추진

‘함께 행복한 교육’ 비전으로 ‘화합과 상생의 시대’ 실현

충북도교육청은 인공지능시대와 인구절벽 위기를 맞이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충북교육의 혁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의 혁신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왔다.

2018년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우리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의 높이를 키워가도록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충북교육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와 지역이 손잡고 풍요로운 교육생태환경의 장을 넓혀나가고 아울러, 세계교육의 흐름에 동참하며 충북의 특색에 맞는 교육으로 거듭 혁신하여,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탄탄한 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에도 5대 교육시책과 21개 추진과제, 112개 세부추진과제, 596개 추진사업, 4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백년지대계의 빛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

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며, 함께 배우며 가르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인재가 세계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행정업무중심에서 배움과 돌봄을 책임있게 실천하는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로 혁신하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기반으로 한 학교자치와 협력적인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이 높은 인재를 기르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능력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지향

타자의 삶에 연대하는 공감지수와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꽃피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 확대

모두 다 배려하고 존중받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성별, 인종, 세대, 지역, 장애, 다문화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폭력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자연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교육토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도내 학교시설 사용료 인하 현실화,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발광다이오드(LED) 대체, 에너지 절약·산업경쟁력 강화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학교시설 동호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시설 사용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김양희)가 1월 31일 제361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도내 학교시설 사용료가 인하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학교시설 사용료는 학교별 편차 및 독점사용 등의 불합리한 문제로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미비점 해결을 위해 동호회 대표·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는 등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나섰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체육관(강당)이나 운동장의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사용료의 50% 인하, 시·군 단위별 동일한 사용료 부과, 학교별 격차 해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는 또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기존에 사용하는 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도내 발광다이오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LED조명의 보급·확산과 예산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건축물과 경관조명 등에 LED 확대보급, LED조명의 민간부문 보급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충북도의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특별회비 전달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도 제천 화재피해 성금 모금



1월 2일과 1월 15일 시·도회의의장협의회가 모금한 수재의연금과 도의회가 마련한 ‘적십자 특별회비’를 각각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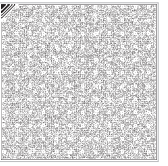
충북도의회는 1월 15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2018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전달했다.

김양희 도의장과 박종규 부의장, 박병진 의원, 김경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도의회는 전달식에서 “적십자 봉사활동이 더 큰 믿음과 봉사의 실천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또, 1월 2일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성금으로 모금한 수재의연금 800만원을 시·도회의의장협의회로 부터 전달받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방문해 윤석성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 양준욱 회장은 도의회에 성금을 전달하며 “피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작은 정성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의회, 대안학교 링컨스쿨 학생 초청 의정체험활동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의식과 자아실현 기회 제공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월 9일 이숙애 의원 주관으로 대안학교인 링컨스쿨 학생 30여명을 초청해 의정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충북도의회는 1월 19일 대안학교인 청주링컨스쿨 학생 30여명을 초청해 '대안학교 링컨스쿨 학생 도의회 의정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대안

학교 링컨스쿨 학생 도의회 의정체험활동'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 이해시키고 민주시민 의식과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한 학생들은 충북도의회로부터 상세한 현황설명을 듣고 시설 등을 견학했다.

학생들은 또 본회의장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사봉을 잡고 직접 회의를 진행하며 의정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는 이날 체험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의회 기능과 역할이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교육적 측면이나 학교생활 등을 통해 청소년들도 도의회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 요녕성상무청 대표단 도의회 방문 협력 모색

지역경제 문화예술 투자유치 등 교류로 상호 발전 기대



중국 요녕성상무청 대표단 일행이 김용역 한·중교류협력회장 등과 함께 충북도의회를 방문해 양 도·성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중국 요녕성상무청 대표단 일행이 1월 18일 충북도의회를 방문해 환영인사와 함께 양 도·성간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날 환영 자리에는 도의회 임재창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관계자들과 중국 요녕성상무청 송예린 청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 김용역 한·중교류협회장, 김진태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요녕성상무청 대표단은 임재창 부의장과 면담하고 본회의장과 시설들을 견학한 후 충북도의회와 요녕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했다.

도의회는 “이번 요녕성상무청 대표단 방문이 충북과 중국 요녕성 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의 계기가 되어 향후 지역경제, 문화, 예술, 투자유치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송예린 청장은 “이번 방문을 환영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성간의 우호교류와 협력방안 모색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랑 나눔문화’ 확산

화재참사로 침체된 제천에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도 가져



충청북도의회는 2월 13일 설 명절을 맞아 화재참사로 침체된 제천지역의 전통시장인 '동문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 등 생필품들을 구입했다.

제천지역 경제 조속 정상화 동참 호소

충북도의회가 설 명절을 맞아 화재 참사로 경기가 침체된 제천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갖고, 도내 도민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민생행보를 펼쳤다.

도의회는 김양희 의장, 임병운·정영수 위원장, 윤홍창 의원 등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50여명이 함께 제천지역 전통시장인 동문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화재 참사 이후 주변상권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침체를 겪고 있는 제천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지원물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제천 동문시장을 찾은 김양희 의장과 일행들은 설 명절 준비에 필요한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들을 구입하고, 백남철 상인회 수석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제천지역 상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경제 정상화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다.

김 의장은 “국민적 애도가 이어진 화재 참사와 참사 이후의 경기침체로 제천 시민들이 이중·삼중고를 겪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제천 지역경제가 하루라도 빨리 예전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린다”고 전했다.

노인요양원 등 소외계층 관심 확산 기대

도의회는 또 2월 13일 김양희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소재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서청주노인요양원’과 ‘푸른나무오송요양원’을 방문해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임재창 부의장은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단양 소재의 노인요양시설인 노인보금자리과 노인전문요양원, 예텐의집, 다사랑노인요양원 등을, 김인수 부의장은 보은 소재의 장애인보호시설인 숲속놀이터 및 노인요양시설인 보은의집, 성암홈케어 등을 각각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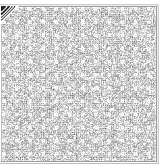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임병운 위원장과 위원회 직원들이 함께 청주시 옥산면에 위치한 청목복지재단 청목아카데미’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설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임병운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책복지위원회는 8일 김영주 위원장, 이광희 의원 등과 위원회 직원들이 함께 청주시 미평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인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청주 죽림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우리집그룹홈·투모로우그룹홈을 각각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등 훈훈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김영주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렵고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자 복지시설을 방문하게 됐다”며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이웃사랑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지



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2월 6일 진천군 광혜원면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차미원’을 방문해 근로원생과 시설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최광옥 위원장은 “이번 방문이 복지시설에서 직업적응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근로원생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설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직업재활의 꿈을 실현하며 삶의 보람을 찾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땀땀이 사회에 진출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이의영 위원장, 임병운 의원 등과 위원회 직원들이 함께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에버그린 사회복지센터’와 오송지역 ‘아동센터’ 등을 각각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을 둘러본 후 입소자 및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에버그린 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한 이의영 위원장은 “한파와 어려운 경제상황에 지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하고, 임병운 의원은 오송지역 ‘아동센터’ 등의 방문에서 추진 중인 문화체험활동과 학습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월 5일 정영수 위원장, 이종욱 의원 등과 위원회 직원들이 함께 2월 5일 청주시 금천동에 위치한 ‘남청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원들은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학습활동을 돕는 학습공간으로 더욱더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가정형편이 다소 어려운 아이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소중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영수 위원장과 김학철 의원 등은 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충주시 노은면 소재의 노인요양시설인 ‘충주평화의 집’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늘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의회는 각 지역별로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민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도의회에서도 지역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민생현장을 최우선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61회 임시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촉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병운)는 제361회 임시회 첫 날인 1월 17일 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했다.

1월 17일 실시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서는 김진형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금년도는 제 10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11대 의회 개원준비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특히,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다양한 신규 사업이 반영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1대 도의회 개원준비를 위해 5월중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민 공모로 슬로건을 추진하는 등 개원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둘째,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의회 실현을 위해 의원 개인별 연구 활동비를 3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중국, 일본 이외에도 러

시아 연해주의회와도 국제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의회교실 스피치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도내 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넷째,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의정활동 사진 디지털베이스(DB) 구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의회사무처 역량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개편하고 선진의정 도입을 위해 시·군의회 직원과 함께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에서 남연옥 의사담당관은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공동발의자의 연서로 발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서명·날인이 혼용되고 있다”며 “향후에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서명으로 추진할 것”을 안내했다.

위원회는 또 제3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열어 2017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을 선임하고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1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제3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61회 임시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도민복지 향상 위한 현안사업 차질없이 추진 주문



위원장
김영주 의원



부위원장
이양섭 의원



박우양 의원



박종규 의원



윤은희 의원



이광희 의원



1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11개 소관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박종규 의원이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각 분야별 전문 강사를 충분히 확보·운영해 당초 목적했던 성과를 달성하라고 주문하고, 청주의료원이 5년 연속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에서 A등급, 응급의료기관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섭 의원은 경로당 보조금 지급 시 인구 수, 운영현황, 난방비 등을 분석해 경로당 별 차등지급과 수도요금의 감면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중 소액이나 수혜자가 많은 장학금이 일부 있어 장학금에 대한 가치제고를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박우양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

석하고 원인별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신규 시행되는데 도민들이 깊게 이해하고 폭넓게 인지하도록 홍보·교육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은희 의원은 여성 세대 간 이해를 돕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충북젠더네트워크 사업은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운영 성과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환류시켜 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 메르스, 뎅기열 등의 신종 감염병과 계절별 유행 질환은 평상시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처능력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한 부모 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등의 많은 성평등 정책과 성류화 제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연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함께 다양한 정책입안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61회 임시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조례 등 개정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광옥)는 제361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먼저,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서 이언구 의원은 지역신문과 도정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한 도정홍보 극대화 방안마련을 주문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의 부진을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했다. 또 도지사 공약인 충북 문화예산의 2%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봉순 의원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충북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신자료를 제공하여 충북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 등 행정업무 수요가 많은 부서에 우선하여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연철흠 의원은 감사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서 공직자 재산신고 불성실 관행을 지적하며, 사전교육을 충분히 한 후에도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고발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인 청주 종합스프츠타운 조성사업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청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자치연수원 업무보고에서 미래화, 세계화 추세에 맞게 공무원과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2018년도 교육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 되려면 그에 따른 노력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위원장
최광옥 의원



부위원장
연철흠 의원



박봉순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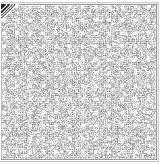
박한범 의원



이언구 의원



1월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사항과 상정된 안건 및 기타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61회 임시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미래 4차 산업에 대한 체계적 계획수립 요구



위원장
이의영 의원



부위원장
황규철 의원



김인수 의원



엄재창 의원



임병운 의원



임희무 의원



1월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 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의영)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1월 17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엄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사용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해 에너지 절약을 선도·효율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발광다이오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충북지역 공공기관, 가로등, 공공 건축물 조명은 LED를 우선 사용해야 하며 민간시설도 LED조명을 설치하거나 교체 시 충북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실시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하여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

정되어 원안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경제 통상국, 농정국,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금년도 주요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청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건립되는 만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중국에 시장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세계 각 나라가 미래 첨단산업으로 4차 산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충북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임을 지적한 후, 4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충북경제 4% 조기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농정국 조직 개편으로 동물방역과가 신설되어 구제역, AI 등의 가축질병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해 가뭄, 홍수, 구제역, AI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활성화 방안 마련과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61회 임시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단 현장점검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임순목)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또,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단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먼저, 위원회는 1월 18일 충주로 이전한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단 사무실을 방문해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역대 최대·최고 수준의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철주야 지구촌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재해현장에서 헌신·노력하는 전 세계 소방관들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드린다며, 전 세계 소방관들이 모여 우정·화합을 나누고 스포츠 경기를 겨루는 국제대회인 만큼 많은 외국선수가 참가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1월 25일 위원회 소관 7개부서와 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불합리한 사업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금년도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참사 후속대책 마련, 충주 밀레니엄타운조성 관련 신중한 사업추진,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통한 충북 교통방송 설립,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며 시정 및 개선을 주문했다.

또, 제천 복합건물 화재참사와 관련하여 소방합동조사단의 발표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다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찰의 기회로 삼아 충북소방이 성숙된 조직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해 줄 것과, 소방본부는 국회·정부·수사기관 등이 요청한 자료작성, 사고조사, 후속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충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장
임순목 의원



부위원장
이광진 의원



강현삼 의원



김봉희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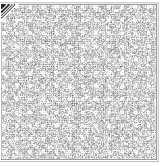
박병진 의원



장선배 의원



1월 2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북개발공사 충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등 처리 안건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

제361회 임시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도내 특성화고 미달사태 대책방안 마련 등 강조

위원장
정영수 의원부위원장
이종욱 의원

김학철 의원



윤홍창 의원



이숙애 의원



임헌경 의원



1월 18일 2020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가칭)청원2초·중학교 설립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설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영수)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1월 19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각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진사업의 근본 취지와 목표들이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수립되었는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주요업무계획 검토에서 정영수 위원장은 도내 특성화고 입학 미달사태를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직업교육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향후 미달사태 없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의원은 교육관련 사업 추진 시 학교 현장이나 도의회 등의 관련기관들과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홍창 의원은 제천시 지역 신규교사 쏠림 현상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규교사 배치에 있어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헌경 의원은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활성화 사업에 예산지원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작은학교 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추진계획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숙애 의원은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학업중단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지속하며 자신의 진로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학교가 도내에 많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가칭)청원2초·중학교 설립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이어,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과다정원 책정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증가 사유로 부결 처리했다.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361회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 엄재창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가 기존에 사용하는 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도내 발광다이오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
-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 LED의 공공부문 보급 확대
- LED조명의 민간부문 보급 촉진 (안 제6조)
- 도지사의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생산 LED 조명 제품 우선 사용 권장 (안 제7조)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대길리 일원
 - 사업규모 : 1,084,260㎡ (약 33만평)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총사업비 : 약 1,705억원 (보상비 731억, 조성비 661억, 기타 313억)
- 사업타당성분석
 - 경제성 분석 결과 : B/Cratio 1.1177>1
 - 순현재가치(NPV) 114,011백만원>0, 내부수익률(IRR) 5.69>4.5%(할인율)로 분석되어 당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
 - 재무성 분석 결과 : PI 1.0140>1
 - 순현재가치(FNPV) 1,985백만원>0, 내부수익률(FIRR) 5.03%>4.5%(할인율)로 나타나 당해 사업은 재무적 타당성 확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양희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에 대해 1개월 이상 장기 사용시 사용료를 인하여 징수액 편차를 해소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22조 제2항의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중 1개월 이상 장기사용료를 인하고 냉·난방기 가동 시 20% 범위 내에서 가산 징수
- 같은 조 제5항의 장기사용 시 재산 관리관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별표에 정한 사용료 징수로 명시하며 같은 조 제6항 제2호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삭제
- 도지사의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생산 LED 조명 제품 우선 사용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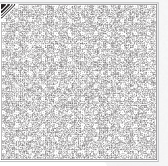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의 직원 구분을 상위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임용 시 권리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여 직원 임용·관리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직원 구분 변경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 ⇒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 및 행정원
- 직원 임용 시 결격사유 삭제
 - 상위 법률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명시적 위임없이 임용 시 권리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조례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삭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
 - 지방공무원 총수: 3,135명 → 3,175명, +40명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
 - 일반직공무원: 2,883명 → 2,903명, +20명(5급 이하)
 - 교육전문직원: 236명 → 256명, +20명(5급상당 이하)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결혼·출산·양육 등 포괄적 지원을 위한 조례명을 개정하고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비혼·만혼 방지를 위한 적령기 결혼 장려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명을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우대카드 명칭을 '아이사랑 우대카드'로 변경
- '출산장려 종합계획'을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으로 용어 변경
- 저출산대책위원회 성별비율 관련 문구 수정
- 적령기 결혼장려에 관한 지원근거 신설

충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8학년도 3월 1일자 학교(유치원) 신설·폐지 및 교명·주소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 신설

명 칭	위 치	개교일자	설립사유
충주중앙탑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주시 중앙탑면 원양4길 52	2018.3.1.	충주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유아배치
충주중앙탑 초등학교	충주시 중앙탑면 원양4길 52	2018.3.1.	충주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학생배치
주성중학교 부설방송통신 중학교	청주시 청원구 울량로 152	2018.3.1.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의 학력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관련 법령 '항공사업법' 시행(17. 3.)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 사업 유형 및 주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정한 지원금 교부 방법 삭제

[주요내용]

- 관련 법령 인용 조문 개정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 → 항공사업법 제65조
 - 항공법 제2조제31호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 같은법 제2조제32호부터 제34호까지 → 제2조제9호·제11호 및 제13호
- 특정 지원금 교부방법 삭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대상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 투자진흥기금 조성 방법에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을 추가
- 투자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 하는 사업을 추가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도내 각종 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학생 배치 등 학생·학부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심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 현황 및 설립규모

학교명 (가칭)	설립 규모		시설 규모		위 치 (개발사업)	개교 예정
	학급	학생	부지(㎡)	건물(㎡)		
청원2 초·중	초 18	초 600	12,800	13,727.55	충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0-9 (오창센트피아 2,500세대)	2020.9.
	중 12	중 399				
	유 6	유 118				
	특수(유)1					
	특수(초)1					
	계 38	계 1,117				



장선배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제천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발생과 관련한 충청북도 소방정책은

소방점검 결과

[질문] 민간 소방업체에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과는 별도로 소방서에서 특정소방대상물 10%를 선정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소방특별조사에서는 무엇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 사항과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답변] 그 사항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는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업체에서 점검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작동여부 및 기능 이상여부를 점검하는 것이고 소방관들이 점검하는 것은 비상구, 통로 등을 점검하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질문] 제천 화재 참사로 충북소방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점검업체의 안전점검에서 업체 직원이 여탕을 건너뛰어 목욕용품 수납장이 비상구를 가린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점검업체 안전점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점검업체에 여성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성만의 공간인 경우 여성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무선통신망 관리 분야

[질문] 무선통신 장비가 모두 구형인 아날로그형이었는데 아날로그식 차량 및 휴대용 무전기가 통화품질이 안 좋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무전기 교체구입 예산으로 2017년 5억원, 2018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또, 연간 소방장비 구입 예산이 200억원 이상으로, 관심만 가졌다면 빨리 교체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답변] 소방 무선통신망도 1~2월 중 전수 정밀점검을 하고,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모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인력 충원

[질문] 제천 화재의 초기진압 실패 원인중 하나로 소방인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소방인력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행안부 소방인력 기준은 2,074명인데, 충북의 정원(별도정원 포함)은 1,765명으로, 15%인 309명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인력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국비는 국비대로 더 요구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도비를 더 부담해 부족한 행안부 기준인력 기준대로 충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 정부의 전국 소방공무원 20,000명 증원 추진 방침에 따라 충북지역 소방공무원 수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1,265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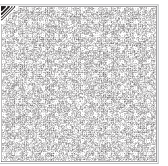
지난해 147명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 226명을, 내년에도 213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 170명, 2021년 254명, 2022년에 255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정부 간 기능과 권한 정립

[질문] 소방본부가 도 소속으로 돼 있고, 도지사에게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이 부여돼 있지만 재난 관련 고유 업무는 소방청과 행안부에 직속돼 있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 대응 과정에서도 기능과 권한이 이원화돼 있어 여러 분야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도지사에게 총괄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인정하시죠?

[답변] 지휘권은 소방청장이 가지고 있고 도지사로서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제천시민·도민께 사과드립니다.



윤홍창 의원
(교육위원회)

제천 화재참사 종합대책 및 충북도 MRO사업 감사원 감사 관련

인명피해 원인 및 소방인력

[질문] 제천지역 화재 참사 사건은 사망 29명, 부상 40여 명으로 총 7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입니다.

지사님, 이번 화재 참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부족 그리고, 각종 건축법과 기존의 제도가 너무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안전행정부 기준으로 제천소방서의 기준인력은 169명인데 현재 정원이 99명입니다. 충북 세 번째 도시인 제천시가 소방인력 확보에 있어서는 7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작년까지 제천시와 단양군을 제천소방서가 관할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제천단양소방서의 소방인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방서가 분리되며 단양군 쪽으로 배정이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사님, 당장이라도 올해 예산을 마련하여 소방인력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

[질문] 이번 참사 때 무선통신망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답변] 여러 가지로 문제된 무선통신망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무선통신망이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서만 유가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처럼 '제천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검토해보겠습니다.

MRO사업 감사원 감사

[질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기관이나 공직자를 처분조치 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원 처분결과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감사원 처분결과에 대해 일부 과장 보도된 것에 대한 반박 기사를 낸 것이지 감사원 처분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경제자유청에서 집행한 MRO사업과 관련하여 83억원에 대하여 감사원에서는 무리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는데 경제자유청에서는 무리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답변] 그 문제는 윤홍창 의원께서 지적한 부분이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MRO사업과 관련한 83억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사님께서 2016년 8월 29일 아시아나 항공 MRO사업 포기에 관련하여 도민께 성명 발표 시 아시아나는 사업은 포기하지만 청주국제공항 에어로폴리스지구를 MRO사업을 포함한 항공관련 복합산업단지로 특화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국제노선 확대와 공항시설 개량, 활주로 연장 등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추진하거나 완료된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항공 관련하여 청사신축도 하고 있고, 또 주기장 3개를 새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예산에 반영했습니다.

MRO사업과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MRO사업이 안될 경우 분양을 통해 한 톨의 손해도 없이 회수 할 수 있으므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학철 의원
(교육위원회)

장기적 부실급식 방지대책 및 과학고 교육환경·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실급식 방지대책

[질문] 청주의 모 여고 부실급식과 관련하여 차마 눈뜨고 볼 줄 수 없는 부실식단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이 급식지도 수당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업무파업과 해태였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 파업사유가 된 것은 그 사안인데,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 파업이 장기화되었던 면이 있습니다.

[질문] 급식지도 수당 지급 근거가 없고 충남교육청에서도 부당지급 했다가 감사원 감사 후 환수조치 된 바도 있습니다.

급식파업 관련 관련자와 주동자를 징계하셨다고 지난 주 보도가 되었는데 어떤 징계수위였습니까?

[답변] 해당 영양사는 정직 2개월, 교장과 행정실장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질문] 문제는 파업으로 인해 아이들이 정당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차라리 급식에 대한 아웃소싱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드립니다.

과학고 주변 교육환경 개선

[질문] 과학고등학교 축사 난립 문제가 전국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축사 난립문제 관련 소송 쟁송이 「건축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환경보호와 관련 법률의 이해충돌에서 발생하는 갈등인데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패소 가능성도 있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학교환경 보호법에 따라 지금 현재에도 정문기준 200m 안에는 축사가 들어올 수 없는데 지금 4개

의 시설이 공사 중입니다.

이는 학교 정문의 기준을 학교의 진출입문으로 고시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학교의 진출입문 및 과학고 주변 숲 경계까지 학교 시설로 전환하여 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부적절 발언·행정사무감사 관련

[질문]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일부 교육장께서 업무보고 석상에서 부적절하고 수위가 높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한 언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답변] 예, 보고 받았습니다.

[질문] 인신·인격 무시에 관한 발언을 한 교육장은 해당 지역청의 수장으로서 교육청을 이끌어 가시기에는 부적절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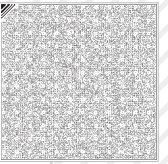
그러한 발언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과 교육가족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며, 본인 스스로가 거취문제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충북교육계의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감당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특정학원의 감사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질의해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께서 충북학생수련원 및 제주분원의 비공개 객실과 관련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언론에 공개되는 안 될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유출된 사례가 없다고 확인하였더니 의원님들께서 수사의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사를 통해 교육청에서 조사나 감사로 밝힐 수 없는 부분까지 밝혀지게 되면 그때 가서 응당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버려진 3만명



엄재창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단양군은 철쭉제를 비롯한 각종 대형축제와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열리고 단양팔경과 고수동굴 등 많은 유명 관광지가 있으며 패러글라이딩과 래프팅 같은 익스트림 레포츠를 즐기 위해 매년 천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양군은 대형 안전사고나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응급의료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단양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 심혈관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에 종합병원과 재활병원 등이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낙후된 의료서비스 대책마련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단양의료원 설치를 위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2015년 기준 177억 원이 넘는 적자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존폐 기로에 있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9.5%인 단양군은 의료시설이 있다고 해도 운영비 지원이 어려워 관련법을 개정해 국비가 지원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대응 필요



박우묵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보한 인공지능과 ICT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이전 산업혁명 단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해 7월 실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충청도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77%가 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66.7%가 충북의 부서, 예산, 인력 등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공무원 교육 및 자기개발 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11.5%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청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시대변화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미래 지방행정을 이끌 창의적 마인드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바, 집행부에서는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적극 참여 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주관 부서를 팀에서 과로 확대 개편할 것과 예산, 인력 등 행정 체계의 발전적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천화재참사,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임순묵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2017년 12월 21일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인해 29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해 삼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 드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 소방안전 정책의 책임 명확화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책임자입니다.

무리한 3교대 추진으로 인한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으로 인한 현장 대응능력이 저하 되었지만 소방서 확충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전혀 내실을 기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도민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 소방이 보다 성숙된 조직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과학고 주변 축사 난립 해결책,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야



이 숙 애 의원
(교육위원회)

충북과학고는 도내 1%의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30여 년간 과학기술인재를 배출해 왔고, 좋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150여명의 학생들이 1년 내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과학고 학생들은 주변의 축사 난립으로 악취·소음 등에 시달려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충북도의회 주도로 충북도, 청주시·시의회,

충북도교육청 학부모 대표를 주체로 한 ‘충북과학고 축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입니다.

둘째, 학교환경보호구역 재설정 및 고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민사소송(공사중지, 착공 및 입식금지가처분신청) 승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부모들이 제기한 행정소송·행정심판청구의 결과가 철저하게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 보호차원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기 허가된 축사에 대한 실비보상을 통해서라도 축사건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더 이상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학습권과 다중이용시설 위생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시·군의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괴산지역 유기농산업 진흥을 위한 제안



임 회 무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전 세계 농업은 점차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유기농업과 유기농융복합산업 시장은 큰 발전가능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 2015년 9월 괴산군에서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2012년 괴산군을 유기농 특화군으

로 선포했습니다. 괴산군을 유기농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청주시·충주시가 추진하는 유기농업 관련 사업처럼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충북도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도비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국내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해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2020년 이후 괴산에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해 괴산이 진정한 유기농산업 메카로 발돋움 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확대 절실



정 영 수 의원
(교육위원회)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 후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최근 3년간 도내 출산율도 1.39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충북도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서둘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존의 기본 계획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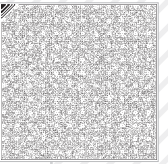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충북도의 저출산 극복 관련 업무들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되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전담부서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충북도의 주도하에 11개 시·군 지자체 저출산 업무 실무담당자들과 관련 전문관들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실무 협의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홍보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공감대를 높여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타 시·도와 차별화된 파격적이고 과감한 지원으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충북도’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 화재 참사 우리 모두가 책임 통감해야



박 봉 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으며,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무엇을 했습니까? 국회는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이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도로교통법 등 대형 참사를 가져온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정쟁에 밀려 못하다가 어제서야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번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소방공무원의 구조 활동이 문제시 되어 처벌론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소방대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문책당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충분한 여건을 제공했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법제도를 정비하지 못했던 국회의원,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던 충청북도, 화재대응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소방대원, 불법주차 등 화재진압을 어렵게 한 도민 모두에게 잘못과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천과 밀양의 화재참사의 잘못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우리 모두 합심해 안전한 충북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송 바이오밸리의 현주소



임 병 운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과 관련해 현재 1, 2단지는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지만 오송의 정주여건은 어중간한 규모의 주거지역 및 상업시설, 미비한 수준의 문화·체육·교육·의료시설, 광범위한 미개발 부지가 혼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조성이 백지화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송역세권개발이 민간개발 방식 추진이 어

려운 상황이므로 공영방식으로 재 추진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조차 어렵다면 오송 2산단을 조성하면서 약 2,9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금 발생이 추정되는 바, 법에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오송역세권 지역을 신도시 수준의 문화·체육·교육 등의 테마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오송산단 저류조 뚝 붕괴로 17억원 정도의 침수피해를 입은 오송읍 3개 마을에 대한 보상 및 복구지원 대책 마련과 2010년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개발지역으로 편입된 충북무형문화재 옹기장 박재환 선생의 봉산리 옹기가마터가 반드시 보존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상속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변호사 전 희 태
(법무법인 주성)

사람이 사망하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는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보다 채무(빚)를 많이 남기고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자기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됩니다.

상속인 중에는 물려받을 빚이 너무 많아서 상속 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때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물려받지 않지만 재산도 역시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 경우 빚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전부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순위 상속인들이 뜻밖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민법은 ① 처와 직계비속, ② 처와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빚이 많다는 이유로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내지 4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 사람은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내지 4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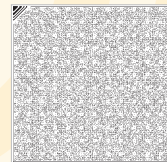
상속인의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가 좀 번거롭지만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증명이나 소장 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3개월의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그 빚을 갚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조사했는데도 상속채무가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와 예방

▶ 위액의 역류, 위식도역류

위식도 역류질환은 식도나 위 사이의 근육 중 하나인 하부식도괄약근이 느슨해져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는 병이다.

위식도역류 증상이 생기면 식도염이 생기기 쉽고 심할 경우 식도협착이나 궤양 출혈, 암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을 보면 가슴부위에 통증이 주 증상인데 협심증, 천식, 위궤양 등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 쉽다.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들 중 절반 이상이 통증으로 잠을 깨는 고통을 받기도 하며, 복부비만이 있으면 역류성 식도질환 위험이 1.47배 높아진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다른 대사증후군 증상이 있을 때도 역류성식도질환 위험이 1.42배 높다. 즉, 과식 습관은 복부비만 또한 역류성 식도질환을 일으킨다.

▶ 역류성 식도염의 주된 증상

전형적인 증상은 속쓰림과 산역류이며 갑작스런 · 점차적인 신트림이 있을 때, 입안으로 신물이 넘어오거나 음식물을 삼키려 할시 통증이 있을 때, 가슴부위에 타는 듯한 느낌(가슴앓이, 흉통)이 있을 때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할 수 있다.

단 흉통 증상의 경우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과 혼동되기 쉽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 외에도 마른기침, 잦은 목쉼, 인후두 불편감 등의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만성 기침환자 중 역류성 식도염을 기침의 원인으로 갖고 있는 환자가 5~7%라고 되어 있다.

▶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위식도역류질환을 예방하려면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인 경우 체중을 줄여야 한다.

식이요법으로는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낮추는 기름진 음식, 술, 담배, 커피, 홍차, 박하, 초콜릿 등과 사과일 주스, 토마토,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를 삼가는 것이 좋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며 식사도중 물을 마시지 말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한다.

식사는 반듯하게 앉아서 먹고 식후 2~3시간 동안은 눕지 말고, 취침 전 2시간 이내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열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걷기, 달리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필수다. 살 빼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알려진 근력운동도 기초대사량을 늘려 체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과 휴식 중 계단 오르내리기, 공원 산책하기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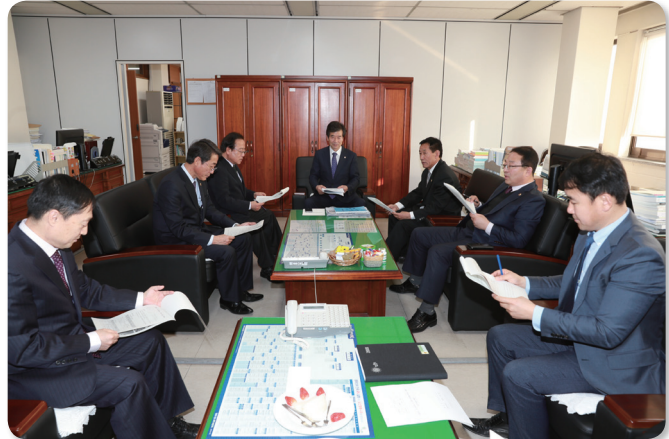
의회운영위원회는 1월 17일 간담회를 열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제362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1월 18일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1월 18일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사·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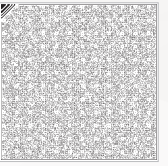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운영과 상정된 안건들을 협의하기 위한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월 25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1월 19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이 1월 31일 청주 그랜드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충북미래비전 2040선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월 18일 충주시에 위치한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이전 사무실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현장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이 1월 10일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제10기 지체장애인협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이 1월 24일 청주서부소방서에서 개최된 '남성의회소방대 대장 이 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이 1월 11일 S컨벤션에서 개최된 '2018충북복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영 주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노인 자살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동안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공공복지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찾아가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복지 현안들을 접할 수 있었고 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복지현안들 중에서도 노인 자살과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자식들 중 한 사람인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감투를 쓰고 있고 노인(65세 이상) 자살률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 수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0%에 육박한다.

행복한 100세 시대의 도래를 선전하는 작금의 현실 그 이면에는 노인 자살률 증가라는 암울한 현실이 숨어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던 옛말은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되어버린 것 같다. 특히 충북도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16)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라는 것이다. 충북에서만 최근 5년 동안 855명의 노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인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해 8월 기동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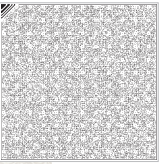
을 위한 법률안」에 규정된 정의를 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어 이와 가장 유사한 무연고 사망자(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다양한 이유로 인계되지 않는 시신) 수로 대체해 보면, 고독사 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충북의 경우 2015년 11명에서 2016년 30명으로 전년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고독사는 1인 가구 중 사회적 무관심에 의해 발생한다. 충북의 노인 1인 가구 수가 현재 48,575명('16)에 이르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인 자살도 경제적 빈곤, 고독(孤獨), 무위(無爲), 질병 등 복합적 원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우울, 스트레스를 매개로 발생하는 바, 단지 개인사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노인 자살 및 고독사는 불가피한 천재(天災)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 예방할 수 있는 인재(人災)이다. 더욱이 충북은 고령화율이 15.8%('17)로 전국 평균 14.2%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 자살과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박 한 범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손발을 묶고 경쟁하는 옥천군의 박탈감



최근 우리 충청북도내 각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확대를 맞아 각 단체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마치 전쟁처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자체간 경쟁을 바라보는 옥천군은 부럽기도 하고 사치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옥천군은 29,083km²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게다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 면적 537km² 중에 83.8%인 449.8km²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 결과 10만명을 웃돌았던 인구가 지금은 5만명을 조금 넘고 있으며, 지방재정자립도 또한 9% 정도로 아주 열악한 군이 돼 버렸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은 옥천주민의 생활과는 무관한 대전, 청주, 천안 등의 식수원 및 대전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지정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집을 포함해서 건물을 짓지 못하며 나무를 베거나, 땅을 절토·성토하거나, 정지·포장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심지어 공터에 물건을 쌓아둘 수도 없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제한이 심하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공장은 물론 관광숙박시설, 축사시설, 종교시설, 심지어는 청소년 수련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 이러한 규제지역이 군 면적의 83.8%가 되는 곳이 바로 옥천군이다.

만약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를 개인으로 비교

하여 각각 토지를 100평씩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본다면, 남들은 이 땅에 어떻게 집을 짓고 무슨 농사를 지을지 연구를 하는데 옥천군은 84평은 이웃동네를 위해 쓰고 나머지 16평 가지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지어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옥천군의 현실이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한다. 무슨 혜택을 받든지 반드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진리이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작 수혜의 대상도 아니며, 군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는 가난한 옥천군에 83.8%가 넘는 땅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놓고 일방적인 부담만 지운다면 지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상실감은 당연할 것이다.

충청북도는 옥천군민의 불편을 비용으로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이웃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수익자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서 옥천군민이 더 이상 상실감이나 박탈감에 정든 고향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한 기회가 아니고, 정치인의 허망한 공약이나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시간을 보내며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공정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가 옥천군이 처한 열악한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설 때 옥천군민 뿐만 아니라 충북도민들에게 함께하는 충북이라는 말이 진정성 있게 다가올 것이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assembtv.cb21.net/>
- 트 위 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